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8월 13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1장 1-9절

설교제목 :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오늘 본문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사장의 규례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도인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일반 이스라엘 회중에서 특별히 구분된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일반 성도 가운데 세운 직분과 연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혁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의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이들을 향존직이라고 합니다. 집사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있는데 안수집사가가 향존직입니다.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 속한 자녀들에게 위임되는 종신 세습직입니다.(1절)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 속한 자녀들에게 위임되는 종신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소명과 은사로 세워집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직분은 표면적으로 교회에서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장과 직분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것입니다.(골4:17) 교회가 직분을 주지만 그 직분은 주님이 위임하신 것입니다. 직분을 통해 무엇을 합니까? 직분자들이 갖는 고유적 직무와 공통적 직무가 있습니다. 우선, 직분자들이 갖는 고유한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의 직무가 다 다릅니다. 공적인 설교는 목회자가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목양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사실, 목사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엡4:12에서 목사는 ‘목자’란 뜻입니다. 따라서 개혁교회의 목사가 하는 직무는 시편 23편의 일입니다. 먹이고 마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찬과 연관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설교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인 치리입니다. 치리는 당회가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합니다. 장로의 뜻은 ‘노인’이란 뜻입니다. 원로란 뜻입니다. 공적인 명칭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따라서 당회는 회원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사는 헌금수거와 집행과 구제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행하는 일을 합니다. 돈의 문제는 제직회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당회의 일이 아닙니다. 당회가 헌금의 문제를 다루면 갈등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헌금을 공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예배시간에 헌금을 걷는 행위는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직분자인 집사가 합니다. 더불어 집사는 구제와 그리스도의 자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이 가지는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을 밋시다. 왜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와 화제 즉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이란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처럼 음식제물을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음식은 화목제와 관련된 단어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는 화목의 음식입니다. 즉 예배입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직분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직분자들의 공통적인 직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직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과 같은데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직무입니다. 선지자적 직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직무입니다. 왕적 직무는 사탄과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제사장적 직무입니다. 제사장적 역할

은 예배자이며 예배를 수종드는 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분자는 예배자이며 예배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자질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규례는 제사장이 시신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시신과 접촉을 금해야 했습니다.(1절) 그러나 가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일반제사장과 달리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의 주검에도 가까이할 수 없고, 성소에서 나올 수 없다(12절)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 따라 책임이 더욱 부여됩니다.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이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직분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 직분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마치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중직은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중직일수록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사장은 처가 인척들의 죽은 자로 인하여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4절) 그리고 제사장은 이방인의 장례문화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5절) 이러한 규례들이 오늘날에는 적용되기 힘들지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제사장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직분자로써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사장은 결혼이나 가정에서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7절, 9절) 제사장은 배우자의 선정에서나 자녀 관리에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경건한 배우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딤후3:4, 12) 직분자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는데 본인이 가족을 잘 치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직분자는 자기를 잘 관리해서 결코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고, 좋은 배우자가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봅시다.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와 거룩함이니라”**. 8절에서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말씀이 두 번 강조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을 존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이 신분이 어떤 위치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여기든 여기지 않든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존재하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거룩한 자로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를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도 직분자이고, 허무는 자도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직분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각각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해 봅시다.(레21:1/골 4:17)
- 2)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고유한 직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직분자들의 공통적 직무가 무엇이며 그 가운데 제사장적 직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자질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고, 직분자로서 자신은 어떤 태도와 자질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